

#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원격수업 내실화' 박차

### 전체 교원 대상 신학기 대비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실시간 조·종례 및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동일미래과학고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 정상화 및 원격수업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동일미래과학고는 원격수업 및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22~26일 동일미래과학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시

간 조·종례 및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2월 17일 찾아가는 현장 지원의 일환으로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이 동일미래과학고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원격수업, 학부모·학생 소통 준비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에서 동일미래과학고는 학교의 어려운 점 및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했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3월 이후 시교육청의 지원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동일미래과학고 이강희 교장은 "3월2일 새학기 개학을 위해 전 교직원 모두가 등교 및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대일 장학사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며 수업의 질을 확보하겠다"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순천대 사범대학-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업무협약

### 교육 현장 관련 연구 진흥 및 예비교사들 현장실무 역량 강화

순천대학교(총장 고정진) 사범대학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경모)이 지난 2월 22일 교육 현장 관련 연구 진흥 및 예비교사들의 현장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 초·중등 학교의 현장과 연계한 교사들의 네트워크 형성 ▲전라남도 현장수업 연구와 자료 개발에

관한 교류·협력 ▲학교 현장 실무, 원격교육 및 학습격차 해소 등에 관련된 교과교육과 전남혁신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연구 공동수행 ▲연 1회 정기 학술모임 개최 및 공동연구 결과물 간행물 투고 등의 활동을 공동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순천대 사범대학 전영국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범대 예비교사들이 전남 지역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경모 원장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범대 교수진과 곧 현장에 나올 예비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진도교육청, 신학기 힘찬 새 출발 응원 펼쳐

### 진도 관내 유·초·중 학생들에게 희망 메시지와 함께 장미꽃 전달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지난 2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마음가짐으로 힘찬 출발을 내딛는 진도 관내 유·초·중 학생들에게 신학기 새출발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미꽃 한송이씩 전달하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진도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진도교육사랑 봉사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하는 교육, 모두가 보배로운 혁신진도교육 실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각종 행사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급감한 꽃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화훼농가를 돕

기 위해 장미 2천송이를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장미꽃 한송이씩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이를 지켜본 진도초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진도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으며, 이문포 교육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있는 진도교육가족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신학기 힘찬 출발을 응원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 화순교육청, '전남농산어촌유학생 전입 환영회' 가져

### 학생들의 학습 지원 위한 전교생 대상 학습꾸러미 전달

이현희 화순교육장은 취임 첫날 첫 행보로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학교인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을 방문하여 전입학생 환영과 신입생 입학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직원, 전교생, 전입학생 학부모 및 마을학교운영관계자 등이 함께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전교생 대상 학습꾸러미를 전달하였다.

화순지역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학교는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 천태초등학교, 화순도암중학교로 가족형 4명과 농가형 5명의 서울에서 전학오게 되어 6개월 이상 각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의 시작을 알렸다.

유학생들은 지난 2월에 각 학교와 농가를 사전 방문하여 화순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학

교교육과정 및 농가생활 내용을 점검한 후 최종 화순 지역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다.

전입한 한 학생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코로나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이서분교로 전학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2월 학교 방문 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 학교선생님들과 농가 선생님들의 격려로 즐겁고 행복한 작은학교 생활이 많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우리지역 유일한 분교인 이서분교의 활력 넘치는 신입생 입학식과 전입생환영회를 통해 작은학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

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늘 학교와 함께 마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품격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화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